



###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견보담품 제11

#### 두 부처님 나란히 앉다

세존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을 대표하여 다보담을 열어 줄 것을 대요설(大樂說) 보살이 간청하자 사방 분신의 여러 부처님을 불러 모으셨다. 세존께서는 두 눈썹사이의 백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여 우선 동방의 무수한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을 비추시고 그로부터 차례로 4방 8방, 상하를 합쳐 사방(十方)의 세계를 비추시며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초청하여 오시도록 했다. 세존께서는 그 부처님들을 수송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를 신통력에 의해 달리 청정케 하였는데 다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남기고 다른 천신들과 사람들을 다른 국토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바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을 수송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각각 2백만 억 나우타의 나라들을 신통력에 의해 청정케 하고 그들 모두의 세계를 통치

하고 싶다고 원했다. 이런 뜻을 간파한 부처님께서는 즉시 이 법회에 있던 사 람들을 모두 허공에 올려놓으셨다. 이 로써 <법화경> 설법의 자리가 지상의 영축산에서 허공으로 옮겨졌으므로 이 후 '축무품'에서 법회 자리가 재차 영 축산으로 되돌아오기까지를 '허공회 (虛空會) 설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 기의 순서를 따라가면 '보배담의 솟아 남', '사방의 부처님들이 모여 올', '삼 변토전', '보배담의 개담과 이불병좌', '법회가 허공으로 이동' 등 어느 것이 나 기상천외한 것이어서 이 '견보담 품'은 웅대하고도 장려한 하나의 드라 마라고 해도 좋다.

중국 삼론종의 길장(吉藏)은 이 이불 병좌에 대해서 "다보불은 오래 전에 멸 도했지만 불멸(不滅)이면서도 멸도의 상(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다보 불과 함께 석가불이 나란히 앉음에 의



인과를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분심·복수심 내선 안돼  
새로운 업 짓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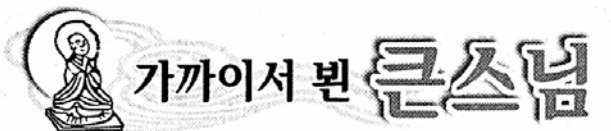
봄 날씨 치고는 유난히 더웠던 4월 22 일, 청주 관음사에서 이두 스님을 보았다. 2년여의 혹독한 병고를 치렀고 아직도 완쾌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스님은 특유의 자 비로운 미소를 만면에 띄고 반갑게 맞아주 셴다. 어떻게 화를 안내고 늘 웃을 수 있을 까. 스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성질이 날 때면 성질을 내기 전에 곰곰히 자신을 들여다 보세요. 말이나 행동으 로 옮기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라는 거지 요. 사실 화내고 큰 소리 치면 그것이 이기 는 것 같고 당장은 후련한 것 같지만 대부 분 후회가 뒤따를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화낸 것이 속스럽기도 하고, 어리 석은 것이었다고 후회가 따르지요. 화를 내면 그 노여움이 주변을 이끌어 가게 됩니 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무엇이 나오 하여 금 화가 나게 하나' 하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론 화는 이것 저것 여유있게 생 각할 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 나겠지만 불자들이라면 화가 날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으로 관을 하세요. 그러면 노여움은 가라앉고 병증을 되찾게 됩니다."

스님은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염불이 나 진언을 외워보라고 하신다. 화를 참겠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이 화가 날 일인가 하고 관해보면 사실 화 의 실체가 없다. 불끈 하고 솟는 이 마 음이 내 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화도, 노여움도 어느새 거품처 럼 스러져 버린다는 것이다.

스님은 화난 마음, 불편한 마음, 미워하 는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고 하신다. 욕망이나 분노 등의 감정에 고

'천진불(天真佛)', 70이 넘는 노스님 이두 (二如) 스님을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 스님의, 만월처럼 둥근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해맑 은 미소가 늘 떠나지 않고 마음씨가 동심처럼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도 나직하면서도 부드럽고 하신다. 스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 는 걸로 유명하다. 스님을 수년간 모셨던 상좌 현진 스님(해인사 포교국장)은 "예전이나 지 금이나 변함없이 소탈 겸손하시고 당신이 쓰 는 시(詩)처럼 사시는 수행자"라고 말한다. 공 양때도 국 한그릇 반찬 하나뿐이라도 주는 대 로 먹을 뿐이다. 일체 사비를 안 하신다.



## 이두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 착한 일로 선한 인연 쌓고

달릴 때 나는 언제나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하게 된다. 파도치는 바다 같이 쉴 새 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마음의 변화 따라 휘둘릴 것이 아니 라 본래 공한 것을 알아 집착하지 말고 본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두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의 이름이 '계향사(桂香寺)'이다. 우암산 관음사의 원래 이름인 계향사(桂香寺)에서 따온 명 칭이다. 계향사 앞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우리나라 야생화가 울기종기 심 어져 있다. 스님의 심성을 담은 듯 친근감 이 든다. 이두 스님은 꽃을 무척 좋아하시 고 비오는 날을 좋아하신다고 한다.

스님 방에는 은사 금오스님의 사진이 모 서져 있다. 스님은 예불후 아침저녁으로 은사 스님에게 예를 드린다.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사에 철저하고 수행 에 엄격했던 금오스님은 시냇물에 대한 절 약정신 역시 무섭도록 철저했다. 출타할 때는 심지어 기름병에 눈금을 그어두고 절 에 돌아와 확인해 보았을 정도다.

금오스님이 늘 당부하는 말은 "계행을 철저하게 지킬 것"과 "참선에 오로 지 힘쓸 것"이다. 이 말은 이두 스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되었다. 당신께



◇니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이 순간 철저히 수행하려고 가르침을 주시는 이두 스님

### 욕심 다스리면 마음 절로 청정

서 정하신 수행자에서 한치라도 어긋남 이 있으면 아무리 아끼던 제자라도 그날로 보지 않던 분이 금오스님이셨다. 이두 스님 은 한번 화두에 들면 며칠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은사 스님 곁에서 화두에 들던 당시를 회고하신듯 잠시 말을 멈추셨다.

"지금도 몸도 아프고 힘도 없어 화두 들 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 에 하겠다, 나이들면 하겠다 미뤄두 면 결국 늙어서 힘이 없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순간 바로 수행하세요."

회두 참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입니다.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 다'는 굳센 믿음으로 화두에 대해 조금도 분별하지 말고 간절하게 오직 화두만을 파 고 들어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두 스님이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인과를 철저히 믿어야 한 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서 선인선과 (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인과응 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운명이나 팔자니 등을 맹신하는 사람

이 있는데 인생은 스스로 지어가는 삶 일뿐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신 의 업력에 의한 과보일 뿐이예요. 그러니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괴로운 삶을 과감히 단절하고 즐겁고 창조적인 삶을 살 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팔자티령만 을 하거나 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생활을 점검해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참회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자세가 불자들에게는 필요하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스 님의 지론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는 원인과 결과 라고 하는 인과율에 따라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하며 인이 되가고 하고 과가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따라서 어떠한

### 다보·석가모니불 보배담 병좌 법신·보신의 鏡智묘합 나타내

서 하나의 불국토로 만드셨다. 이것을 삼변토전(三變土田)이라 한다.

이리 하여 사방에서 오신 여러 부처 님은 지금은 사바세계가 변하여 청정 공대한 불국토가 된 이 안의 각각 보배 나무 아래에 마련된 사자좌에 앉아서 모두 석존에게 탑을 열 것을 간청했으 므로 석존께서는 영축산으로부터 공중 에 올라 이육고 보배담을 여시려고 했 다. 오른 쪽 손가락으로 문을 열자 마치 큰 성문을 여는 것처럼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러자 그 속에는 사자좌 에 앉아 마치 선정에 들어 계시는 것 같 은 다보불의 전신(全身)이 보였으며 이 육고 다보불께서 "나는 여기에 <법화 경>을 들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보불은 차기 자리의 반쪽을 나누어서 앉을 수 있도 록 양보하며 석가모니불을 탑 안으로 초대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그 초대 에 응하여 보배담 안에 들어가 다보불 과 나란히 앉으셨다. 이것을 '이불병좌 (二佛並坐)'라 한다. 석존께서 보배담 안에 들어가 다보불과 나란히 앉으신 것을 본 사람들은 자기들도 공중에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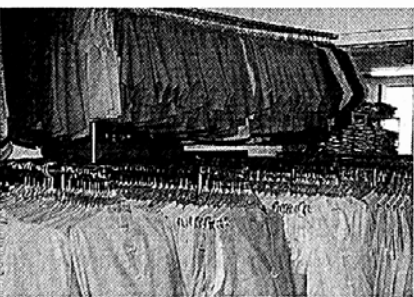
해서 지금의 석가모니불도 실제로는 생멸은 없으나 방편으로 생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천태(天台)는 보배담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이것을 방편을 연다는 개권(開權)에 적응시키고 탑중 부처님 법을 것을 진실을 나타낸다는 현실(顯 實)에 적응 해석하고 있다. 또 '이불병 좌'에 관해서는 경(經)인 법신(法身)의 다보(多寶)와 지(智)인 보신(報身)의 석 가(釋迦)와의 경지묘합(鏡智妙合)을 나 타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여 러 가지 모티브가 경전의 유훈이라는 커다란 목적 아래 통일되어 있다는 점 이다. 본 '견보담품'의 극적(劇的)인 구 성도 모두 그 목적에 따라 기획된 것이 로, 참으로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으 로서는 유훈의 대원(大願)을 일으키기 에 걸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 고 이것은 영동한 공상(空想)의 소신(所 信)이 아니라 역력한 불교신앙 속에 계 승되어 온 전승(傳承) 즉 <잡아함경> 권41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준다.

■무설정사 조설

## 천개불심



# 천개 불심

## 천개 불심



「장삼」

「동방」

「누비」

「누비적삼」

「차이나면」

「차이나친부」

「적삼」

「동방」

삼보에 귀의합니다.

천개불심은 승복(법복)의 대명사입니다. 저희 천개불심은 불심(佛心)을 바탕으로 승복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업체입니다.

한벌의 옷을 짓는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바느질의 정성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을 짓는 정성이 한뼘 한뼘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심이 깃든 승복(법복)을 수하십시오. 불세계로의 출발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천개불심으로 오십시오.

대표 문수환 합장

### 천개불심 오시는 길

